

지역 관광객 수요분석을 통한 신규 관광지 방문특성 변화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The Trend of New Destination for Regional Tourist Demand Analysis

: Case of the Chungnam Province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 of new destination for regional tourism in a local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Tourism Knowledge Information System(TKIS). Two Database were employed in this study: the Reported Visit Data of Tourism Destination(2005-2011) and the National Travel Survey (2009-2010). This survey shows that new tourism destinations in Chungnam Province have increased 70.4%. All of the current tourist destinations are included in the survey as well. The tourist increasing rate is only 16.5% higher overall. This means that Chungnam Province should increase its attractiveness and work to actively develop new tourist destinations. The study also says that good places for people health and healing like hot spring resorts and spa, theme parks, and zoo, located in northern Chungnam, need a marketing strategy for FIT tourist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family unit tourism is more popular than FIT in historic sites such as Baekje/"Naepo"/the Confucian cultural areas. And it's necessary to expand the FIT market for experience tourism programs including local festivals, Farm Stay, etc. Policy and marketing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Local Government.

Key words : Regional Tourist, New tourism destinations, Tourist Activity, Attractiveness

I. 서 론

최근 관광수요와 관광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관광산업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를 기점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 ~ 2003년에는 ‘내 나라 먼저 보기’ 캠페인, 2004 ~ 2005년에는 ‘내 나라 사랑여행’, ‘Love Korea 캠페인’, 2008년에는 영화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국내 관광 목적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였고, 2006~2011년에는 ‘구석구석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여행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관광수요 확산에 따라 수요시장에 대한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관광사업자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수요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요시장의 주체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류인평·김정준, 2010).

관광 행동 변화에 있어서도 관광 행위 그 자체 보다 어떠한 관광을 하였는가라는 경험의 질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개별관광 및 체험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현중, 2007). 윤병국(2012)은 2000년 이후 관광 지리 관련 연구에서 크루즈 관광, 전통주 관광, 스토리텔링 등 새롭게 떠오른 연구주제가 88편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관광 목적지 및 관광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관광지를 하나의 유기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성과 소멸의 일정한 주기를 전제로 한,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송재호·김영표, 2011)에서도 나타나듯이, 관광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발 및 경영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요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관광지 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여행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시간, 비용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국내여행을 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가고 싶은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서, 관광객 이용 활동 변화에 부합하는 관광 목적지 개발 또는 노력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표인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및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국내 관광 목적지들이 관광객 행태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 및 공급되어 지역 관광객 수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전국 대비 충남을 비교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단위 관광지 개발에 대해 전국 대비 유형별 관광 목적지 및 관광객 수 변화상을 차별화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관광지 개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관광 목적지 분류 연구와 관광객 수요조사 동향

관광개발에 있어 유형 분류 목적은 유사한 성격의 관광자원 및 소비행태를 묶음으로 해서 지역에 분포한 자원 및 관광욕구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최승담·조배행, 1993). 관광 목적지는 다양한 관광시설들과 서비스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객 거주지와는 다른 모든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관, 역사자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서비스, 이벤트 등 관광 목적지 속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속성들을 유형화하는 방법 또한 학자들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할 수 있다(한승엽·박수완, 1998).

관광 목적지 유형 관련 연구는 관광자원 분류와 관광지의 유형 분류로 나누어 지지만(김재관, 1988; 황창윤, 1992), 지역 관광자원의 특성이 관광 목적지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특정한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관광과 연관된 교통,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원진·홍현철, 2006). 또한 고동우(1998)는 관광 목적지가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관광 목적지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관광자원 혹은 관광매력물이라는 용어와도 상통한다고 주장한다.

관광 목적지를 유형화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Ritchie & Zins(1978)은 관광 목적지 일반적인 속성 중 자연경관, 기후,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의 접근 가능성과 12개의 사회 문화적 요소 중 전통과 음식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하였다. Coltsman(1981)은 관광 목적지 유형으로 매력물과 문화적 설비를 구분하고, 매력물을 자연환경적 매력물과 인위적 매력물로 구분하였다. Inskip(1991)은 관광 목적지 매력물을 자연적, 문화적 및 특별한 매력물로 구분하였으며, Hu & Ritchie(1993)은 개별 관광 목적지 유형에 대한 매력 정도에 체험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국내 연구에 있어서, 김상훈(1994)은 관광 목적지 유형을 자연관광, 문화 관광, 산업관광, 사회 관광, 위락 관광으로 분류하였고, 조명환 외 6명(1996)은 행락/관광 활동, 사교활동, 근린 활동, 감상/관람 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유흥/오락 활동, 기타 활동을 제시하였고, 엄수원(2003)은 과거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광자원의 유형화에 따른 공간적 체계를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김영우(2004)는 관광유형을 스포

즈 및 체험활동형 관광, 학술 및 비즈니스형 관광, 역사 및 종교형 관광으로 분류하였고, 최석호(2004)는 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적 특수성을 주제로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관광 목적지 유형 분류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형들에 의한 체계적 조사통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통계는 정부 차원에서의 유형 분류에 의해 관광객 수가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관광 지식시스템(www.tour.go.kr)의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에서는 관광 목적지 유형을 대분류로 문화, 자연 및 생태환경, 관광장소 및 시설의 세 가지로, 중분류는 24종으로 문화자원을 인물, 축제·의식, 민속·풍속, 마을, 유적·사적지, 건축, 조각, 회화·서예, 서적·활자기기, 공예·자기의 10개로, 자연 및 생태환경은 동·식물, 보호구역, 산악 및 평지 자원, 수변 및 해양자원, 경승지의 5개로, 그리고 관광장소 및 시설은 관광지구, 공원, 전시·관람시설, 스포츠·체육시설, 숙박·식음시설, 쇼핑시설, 교통시설, 유원·휴양·수련 시설, 부대시설의 9개로 분류하여 전국적인 관광지 관광객 수를 조사 집계하고 있다. 즉, 체계적인 시계열 단위 관광 수급 관련 조사통계는 관광지식시스템에 의해 수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관광 수급분석 관련 연구동향

국내 지역 관광 차원에서 관광 수급분석과 관련하여 시계열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논문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으나 순수 내국인 관광객 수급 분석을 통해 지역 관광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지역 관광 또는 국민 관광 수급 관점에서 이돈재(2000)는 용인시 관광 수급 분석을 통해 수도권 지체들이 지역 독창성에 바탕을 둔 관광정책보다 지역 간 차별성이 없는 유형의 시설 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향후의 관광정책은 지역 차별성과 독창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여송·최규식(2001)은 영주지역 문화 관광 자원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영주시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관광 수급 분석 한 결과, 영주시는 환경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최적지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송재호·허향진·강제정(2004)은 제주도 관광객 수 추계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와 항공사 및 선박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바 있으며, 정확한 관광통계 작성을 위해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윤지현·정문규(2008)의 연구에서는 동해안 4개 지역 관광개발 활성화 연구에서 관광지 유형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한 바 있으며, 송재호·김영표(2011)는 제주관광 동향에 관

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제주도 방문 관광객 현황을 통해 관광지 발전 과정을 1기와 2기로 구분하였고, 주기에 부합하는 관광지 개발 및 경영관리에 의한 수요-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손재영·선우영수(2012)는 동해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3개 시·군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신규 관광 목적지 개발 및 보조자원 결합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지역 관광 수급과 관련하여 조승아(2013)는 자전거 관광객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관광 코스 개발 방안 연구에서 정성적인 관점에서 수요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문헌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 관광 관련 연구에 있어 소규모 지역단위 수요 연구가 많았으며, 차별화된 지역 관광지 개발 및 운영이 관광수요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관광자원 유형이 관광산업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역단위 관광 목적지 유형에 따른 수급분석을 통해 신규로 개발된 관광지들이 기존 관광지와 관광객 수 및 관광목적지 활동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지역 관광 수급 분석 관련 연구 동향

연구자	주요 연구 주제	관광지 유형 및 관광객 수 활용자료
이돈재 (2000)	용인시 관광 수급 특성, 제도 검토에 의한 개발 방향 도출	용인시 통계연보
윤여송·최규식 (2001)	영주시 관광수급특성에 의한 관광 목적지 공급방향 도출	영주시 통계연보
송재호·허향진·강재정(2004)	제주지역 관광객 추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항공/선박이용관광객수
윤지현·정문규 (2008)	관광지 유형에 의한 개발 방향 도출	강원도 및 시군 통계연보
송재호·김영표 (2011)	제주지역 수급 분석을 통한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손재영·선우영수 (2012)	관광지 신규개발, 보조자원 결합 및 차별화 방안 등	시군 통계연보
조승아 (2013)	특성별 선호활동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정성적 연구

자료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자 정리

III. 연구 설계

1.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 관광 관련 승인통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승인한 국내 관광 관련 통계는 총 6가지로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국민여행 실태조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통계 및 호텔 이용객 동태 보고가 있다.

<표 2> 국내 관광 관련 승인통계 현황

승인번호	11317	11305	31401	31402	31404	11307
통계명칭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한국관광통계	호텔이용객동태보고
승인년도	2008년	1975년	1976년	1980년	2002년	1976년
보고기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통계분야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통계종류	일반통계 - 조사통계	일반통계 - 보고통계	일반통계 - 표본조사	일반통계 - 표본조사	일반통계-가공통계	일반통계 - 보고통계
조사체계	입장료징수자(유료관광지) 및 조사원(무료관광지) → 구·시·군 관광담당부서 → 시·도 관광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원(한국갤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기관 조사 및 자료집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과정을 감독하고, 조사당일 설문지를 회수하여 검토하는 1일 통제체계	법무부, 한신은행 → 한국관광공사	호텔 → 구·시·군 관광담당부서 → 시·도 관광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대상 호텔에서 해당 자료 작성 후 제출	

자료 :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검색일:2013.5.7)

본 연구에서는 관광 목적지 유형 분류와 관광 수급 조사 통계와 지역 관광 수급분석 관련 연구동향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6종의 승인통계 중에서 시계열적인 관광 목적지 유형과 관광객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승인번호 11305)와 국민여행 실태조사(승인번호 31401) 2가지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2. 자료 유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표본으로 국내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관련 시계열 자료 중에서 관광객 수 집계방법이 변경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330개 월별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자료를, 관광 목적지 이용 활동에서는 국민여행 실태조사자료 중 주요 이용 활동 유형이 새로 추가된 2009년-2010년까지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자원 유형별, 관광객별 그리고 관광 목적지에서의 주요 활동을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관광 목적지 지정 현황에 따른 관광객 수 변화와 관광지 유형 분류는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에 시계열 자료로 조사되어 있으며, 관광 목적지 유형 분류가 대분류 3종(문화자원, 자연 및 생태환경, 관광장소 및 시설), 중분류 24종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나타난 관광객 주요 활동은 단순 휴식/휴양을 비롯하여 14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4>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통계의 유형 분류

조사 종류	유 형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 (대분류 : 3종, 중분류 : 24종)	문화자원	인물
		축제·의식
		민속·풍속
		마을
		유적지·사적지
		건축
		조각
		회화·서예
		서적·활자·기기
	공예·자기	
	자연 및 생태환경	동·식물
		보호구역
		산악 및 평지자원
		수변 및 해양자원
		경승지
	관광장소 및 시설	관광지구
		공원
		전시·관람시설
		스포츠·체육시설
		숙박·식음시설
		쇼펍시설

* 2011년 국민여행실태조사는 활동유형이 21개로 변경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국민여행실태조사 (14개 항목)	단순 휴식/휴양	교통시설
	자연 및 풍경 감상	유원·휴양·수련시설
	식도락(지역 맛집 등)	부대시설
	야외 위락 및 스포츠 활동	
	역사유적지 방문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	
	건강 및 보양(온천/스파 등)	
	쇼핑	
	지역 문화예술/공연관람	
	지역축제 참가	
	체험프로그램(농장체험 등)	
	종교/순례	
	캠블링(카지노/경륜/경마 등)	
	기타	

자 료 : <http://www.tour.go.kr>(검색일:2013.5.7.)

IV. 분석 결과

1. 관광 목적지 유형별 분포 변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에서 나타난 15개 광역자치단체 별 신규 관광 목적지 유형을 대분류로 살펴보면, 전국에서는 문화자원 58.4%, 관광장소 및 시설 유형이 53% 그리고 자연 및 생태환경은 21.5% 순으로, 동 기간 중국내 관광 목적지는 문화자원과 관광장소 및 시설 자원 위주로 개발된 것을 알 수 있다.

신규 관광 목적지를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관광장소 및 시설은 전국 평균은 53%로, 전국 평균 이상은 인천광역시 566.7%, 강원도 175.9%, 전라북도 75.9%, 충남 68.5%로 나타났다. 문화자원은 전국 평균 58.4%이며, 울산광역시가 500%, 인천광역시 100%, 충청북도 87%, 경상남도 83.3% 및 충남 76.9% 순이다. 또한 자연 및 생태환경에서는 전국 평균 21%로, 인천광역시 900%, 대전광역시 100% 및 충남 70% 순으로 증가되었다.

신규 관광 목적지 유형을 중분류로 전국 대비 충남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관광 목적지 수에서 전국은 유원·휴양·수련 시설(576개), 전시·관람 시설(418개), 숙박·식음시설(217개), 스포츠·체육시설(190개) 순이었지만, 충남

의 경우에는 유원·휴양 시설 67개, 건축 및 스포츠·체육시설 27개, 전시·관람시설 26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시도별/관광 목적지 유형별 변화 추이 - 대분류(2005년-2011년)
단위 : %

시도별	관광장소 및 시설	문 화	자연 및 생태환경
강원도	175.9	42.9	18.8
경기도	30.2	25.0	0.0
경상남도	19.9	83.3	4.0
경상북도	37.7	58.3	33.3
광주광역시	10.0	0.0	0.0
대구광역시	35.7	33.3	-
대전광역시	22.7	-	100.0
부산광역시	-5.0	0.0	0.0
울산광역시	40.0	500.0	0.0
인천광역시	566.7	100.0	900.0
전라남도	22.0	11.9	19.5
전라북도	75.9	66.7	13.3
제주특별자치도	-3.3	0.0	0.0
충청남도	68.5	76.9	70.0
충청북도	36.6	87.0	2.0
전 국		58.4	21.5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분석

관광 목적지 유형별 대분류 증가율 분석 결과는 분석기간 중 10개 이상인 자원을 대상으로 할 때, 전국적으로는 마을(195.7%), 동식물(166.7%), 인물(100%), 전시·관람시설(88.3%) 순으로 증가했으며, 충남의 경우에는 스포츠·체육시설(575%), 숙박·식음시설(400%), 마을(200%), 수변 및 해양자원(15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2005년-2011년), 전국과 충남의 관광 목적지 수 중 목적지가 많고(10개 이상), 변화율이 큰 관광 목적지 자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은 스포츠·체육시설이 전국 대비 약 7배, 건축은 전국대비 2.5배 그리고 유적·사적지가 2배 정도 증가했지만, 관광 목적지 수가 가장 많은 유원·휴양시설 및 전시·관람시설 증가율에서는 전국 대비 각각 70% 및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광지구에서도 전국에서는 24.2% 증가했지만, 충남은 오히려 10%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충남에는 경승대, 민속·풍속, 보호구역, 서적·활자기기, 축제·의식, 경승지

6개 관광목적지 유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국 및 충남의 유형별 신규 관광 목적지 변화 - 중분류(2005년-2011년)

구 분	전 국				충 남			
	2005	2011	개 수	비율(%)	2005	2011	개 수	비율(%)
유원·휴양·수련시설	376	576	200	53.2	48	67	19	39.6
전시·관람시설	222	418	196	88.3	18	26	8	44.4
스포츠·체육시설	110	190	80	72.7	4	27	23	575.0
숙박·식음시설	170	217	47	27.6	1	5	4	400.0
건축	141	187	46	32.6	15	27	12	80.0
마을	23	68	45	195.7	1	3	2	200.0
산악 및 평지자원	131	159	28	21.4	7	10	3	42.9
유적지·사적지	53	77	24	45.3	5	7	2	40.0
인물	16	32	16	100.0	4	7	3	75.0
공원	101	116	15	14.9	3	5	2	66.7
관광지구	62	77	15	24.2	10	9	-1	-10.0
동·식물	6	16	10	166.7		1	1	100.0
수변 및 해양자원	82	91	9	11.0	2	5	3	150.0
교통시설	27	34	7	25.9	5	9	4	80.0
쇼핑시설	10	17	7	70.0		1	1	100.0
부대시설	1	6	5	500.0		1	1	100.0
경승대	18	22	4	22.2				
공예·자기		4	4	400.0		1	1	100.0
조각	5	8	3	60.0	1	1	0	0.0
민속·풍속		2	2	200.0				
보호구역		2	2	200.0				
서적·활자·기기	1	3	2	200.0				
축제·의식	4	4		0.0				
경승지	5	4	-1	-20.0	1	1	0	0.0
소 계	1564	2330	766	49.0	125	213	88	70.4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분석

충남지역의 분석기간(2005년-2011년) 중 신규 포함된 관광 목적지를 상세히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125개소에서 2011년 213개소로 88개소가 증가했지만, 유형적으로 보면, 스포츠·체육시설, 유원·휴양·수련 시설, 건축 및 전시·관람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관광 목적지가 발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유형별로는 스포츠·체육시설은 23개소로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골프클럽 1개소 및 낚시터 22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관광 목적지 개발이 아닌 기존 관광 목적지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유원·휴양수련 시설은 19개소가 증가했으며, 내용적으로는 해수욕장·자연휴양림이 10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리조트 및 수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건축은 각원사를 비롯하여 기존 사찰, 성당 및 고택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 신규 관광 목적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집계되지 않았던 기존 관광 목적지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충남의 유형별 기존·신규 관광 목적지 비교(2005년-2011년)

구 분	2005년(기존 관광목적지)		2011년(신규 관광목적지)	
건축	갑사 공산성 관촉사 금이성 동학사 마곡사 무량사 부소산성	성흥산성 수덕사 신원사 운주산성 충의사 해미읍성, 순교성지 현충사	각원사 갑사템플스테이 개태사 공세리성지(성당) 논산 명재 고택 논산둔암서원	마곡사템플스테이 성곡사 쌍계사 영평사 영평사템플스테이
경승지	추사고택(제8경)		-	
공예·자기	-		청양 목재문화체험장	
공원	칠갑산도립공원 합상공원	고북저수지군립공원	개화예술공원 망향의동산	천안삼거리공원
관광지구	간월도관광지 곰나루관광단지 구드래국민관광지 금강하구둑관광지 덕산온천관광지	삼교호관광지 신정호국민관광지 왜목마을관광지 태조산관광지 마곡온천관광지	-	
교통시설	남당항 백사장항 삼길포	안흥항 영목항	성구미 포구 안섬포구	장고항 포구 한진 포구
동·식물	-		조류탐사과학관	
마을	논산그린투어리즘		5도2촌시범마을 아산외암마을	
부대시설	-		천장호 출렁다리	
산악 및 평지자원	광덕산(아산시) 마량리동백나무숲 백화산	오서산 용봉산 팔봉산	광덕사 광덕산	칠갑산 피나클랜드
쇼핑시설	-		계룡산도예촌	
수변 및 해양자원	궁남지	예당관광지	영인낚시터	정안천생태공원
숙박 식음시설	동백관		계룡산유스호스텔 공주 한옥마을	공주유스호스텔 전통불교문화원

스포츠·체육시설	IMG 내셔널 도고컨트리클럽	에딘버러(구대둔) 컨트리클럽 우정힐스컨트리클럽	곡교천변 낚시터 냉정낚시터 대동낚시터 동천새마을낚시터 망경낚시터 모산낚시터 버드우드골프클럽 봉재낚시터	삽교천낚시터 삽교천변 낚시터 선장저수지 송악낚시터 순천향낚시터 신봉낚시터 신수낚시터 신왕낚시터	
유원·휴양·수련시설	구름포해수욕장 기지포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난지도해수욕장 남이자연휴양림 달산포해수욕장 대둔산 대둔산 대천해수욕장 도고온천 두여해수욕장 마검포해수욕장 만리포해수욕장 만수산자연휴양림 몽산포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바람아래해수욕장 빛개해수욕장 방주골해수욕장 방포해수욕장 백사장해수욕장 삼봉해수욕장 셋별해수욕장 서대산드림리조트 성주산자연휴양림 신두리해수욕장	아산온천 안면도자연휴양림 안면해수욕장 어은돌해수욕장 연포해수욕장 영인산자연휴양림 오서산자연휴양림 온양온천 의항해수욕장 장돌해수욕장 장삼해수욕장 천리포수목원 천리포해수욕장 천안상록리조트 청포대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자연휴양림 통개해수욕장 파도리해수욕장 학암포해수욕장 홍성온천지구 아산의암마을 청산수목원	갈음이해수욕장 골드힐카운티 곰섬해수욕장 구례포해수욕장 꾸지나무골해수욕장 장 도비도 독립기념관 들꽃세상 사목해수욕장 사비성 신성리갈대밭 원산도 해수욕장 이안숲속 자연누리성 천안종합휴양관광 지 청양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청양 숲의 청소년수련원 태학산자연휴양림 허브파라다이스 회리산자연휴양림		
유적지·사적지	능안골고분군 무령왕릉 성주사지	정림사지 칠백의총	다락골 줄무덤 천주교순교성지	황새바위	
인물	김좌진장군생가 유관순열사사적지	한용운선생생가 홍주의사총	유관순열사 생가 이동녕선생 기념관	조병옥박사 생가지	
전시·관람시설	고남패총박물관 고운식물원 공주민속극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금산인삼관 백제군사박물관 산림박물관 석탄박물관	세계꽃식물원 온양민속박물관 임림미술관 자연사박물관 한국건축박물관 한산모시관 독립기념관 웅진교유박물관 지당세계만물박물관	머드체험관 박동진관소리전수 관 백제역사문화관 서동요 촬영지 석장리박물관	역사박물관 오키드타운 우정박물관 천안박물관 칠갑산천문대 파충류곤충체 협관	

조 각	서산만에삼존불/용현계곡	-
합 계	125	213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분석

비고 : 이텔릭체는 2011년 기준으로, 제외되거나 타 유형으로 분류된 관광 목적지임

2. 관광 목적지 유형에 따른 관광객 수 변화

15개 광역자치단체별 관광 목적지 수 및 관광객 수 변화 추이(2005년-2011년)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으로 볼 때, 동 기간 중 관광지 수는 49%, 관광객 수는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체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중 관광지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인천광역시로 8개에서 92개로 5.5배 증가하였고, 이 영향으로 관광객 수도 2005년 920만 명 수준에서 2011년 3,660만 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다음은 강원도로 관광지 수는 151% 증가하였지만, 방문한 관광객 수는 6.1% 증가하였고, 충청남도는 관광지 수가 70.4% 증가하였지만, 관광객 수는 16.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관광객 및 관광 목적지 변화 추이(2005년-2011년)

단위 : 관광지 수 - 개소, 관광객 수 - 10만명

지 역	2005		2011		증가율(%) (2005-2011)	
	관광지수	관광객수	관광지수	관광객수	관광지수	관광객수
강원도	139	814	349	864	151.1	6.1
경기도	199	548	256	700	28.6	27.8
경상남도	190	536	239	722	25.8	34.8
경상북도	267	581	380	1,045	42.3	79.8
광주광역시	12	109	13	131	8.3	20.3
대구광역시	17	758	23	371	35.3	-51.1
대전광역시	24	102	31	195	29.2	91.5
부산광역시	24	442	23	509	-4.2	15.0
울산광역시	24	120	35	159	45.8	32.3
인천광역시	8	92	52	366	550.0	296.2
전라남도	201	792	240	852	19.4	7.6
전라북도	84	439	137	635	63.1	44.6
제주특별자치도	43	158	42	213	-2.3	34.7

충청남도	125	853	213	995	70.4	16.6
충청북도	207	342	277	532	33.8	55.4
총 계	1,564	6,686	2,330	8,286	49.0	23.9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분석

동 기간 중 관광객 수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을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인데, 대전광역시는 관광지 수가 29.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관광객 수는 91.5%가 증가하였으며, 경상북도는 관광지 수 42.3%, 관광객 수 7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경상북도는 유교문화권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관광 목적지가 동 기간 중 70.4%가 늘어났지만, 관광객 수 증가는 16.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관광지에 대한 매력성 증대나 효율적 신규 관광 목적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관광 목적지 유형별 방문객 수 및 점유율 변화 추이(2005년-2011년)를 살펴보면, 유원·휴양수련 시설 관광 목적지는 전국이 53.2%, 충남이 39.6%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객 수에서는 전국이 31.9% 증가한 반면, 충남은 오히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휴양수련 시설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에 있어서도 2005년 32%에서 2011년에는 22.1%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충청남도 지역의 신규 및 기존 유원·휴양수련 시설의 경쟁력이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관람시설에서는 관광 목적지 수가 전국 88.32%, 충남 44.4% 증가하였고, 관광객 수에서는 전국이 36.3%, 충남은 3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관람시설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에 있어서도 2005년 9.0%에서 2011년에는 8.7%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전시·관람시설 유형에서는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충청남도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체육시설에서는 관광 목적지 수가 전국은 72.7%이었지만, 충남은 575% 증가하여, 충청남도의 관광 목적지 유형 중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체육시설 관광 목적지 수 증가에 힘입어 관광객 수에서도 전국이 68.8%, 충남 273.1%로 대폭 증가하였다. 스포츠·체육시설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에 있어서도 2005년 2.0%에서 2011년에는 4.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체육시설 부분에서의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동 분야 관광 목적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식음시설 관광 목적지 수 증가는 전국 평균은 27.6%이었지만 충남 400%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충청남도의 관광 목적지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동 유형을 방문한 관광객 수에서는 전국이 -9.6% 감소한 반면, 충남은 445.6%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숙박·식음시설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은 2005년 0.1%에서 2011년에는 0.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숙박·식음시설 유형에서 목적지 수 및 관광객 수 증가율은 매우 높지만,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충청남도의 숙박·식음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 분야 관광 목적지 수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개소 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해 충청남도의 숙박·식음시설에 대한 신규 목적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관광 목적지 유형별 방문객 수 및 점유율 변화 추이(2005년-2011년)

단위 : 십만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원· 휴양· 수련	관광객수	전국	1,507	1,522	1,828	2,005	1,937	2,000	1,987
		충남	483	495	487	335	428	490	440
	증가율	전국	-	0.0	19.1	8.7	-4.4	2.3	-1.7
		충남	-	1.5	-2.5	-32.3	26.7	13.5	-11.2
충남의 점유율		32.0	32.5	26.7	16.7	22.1	24.5	22.1	
전시· 관람	관광객수	전국	527	490	540	555	520	614	719
		충남	48	49	49	39	41	49	62
	증가율	전국	-	-8.1	9.3	1.6	-7.3	17.2	16.1
		충남	-	3.0	-1.9	-20.9	3.8	18.9	25.4
충남의 점유율		9.0	10.1	9.1	7.1	7.9	8.0	8.7	
스포츠· 체육	관광객수	전국	148	163	158	177	180	202	249
		충남	3	4	4	4	9	11	11
	증가율	전국	-	9.3	-4.0	11.1	0.9	11.3	22.1
		충남	-	18.9	2.7	-4.3	166.2	13.5	0.5
충남의 점유율		2.0	2.2	2.3	2.0	5.2	5.3	4.4	
숙박· 식음	관광객수	전국	373	370	399	389	369	352	337
		충남	0	0	0	0	0	1	2
	증가율	전국	-	-1.8	6.9	-3.5	-6.4	-5.5	-5.2
		충남	-	18.0	-63.4	-26.1	-4.8	1158.8	33.3
충남의 점유율		0.1	0.1	0.0	0.0	0.0	0.3	0.4	
건 축	관광객수	전국	568	530	588	675	680	729	800
		충남	65	62	69	83	87	89	97
	증가율	전국	-	-7.0	9.9	12.8	0.7	6.7	8.9
		충남	-	-4.2	10.7	16.0	5.0	2.6	8.1

	충남의 점유율		11.4	11.7	11.8	12.2	12.8	12.2	12.1
산악· 평지	관광객수	전국	334	419	461	485	506	510	583
		충남	18	17	17	20	31	42	46
	증가율	전국	-	24.2	9.0	4.2	3.5	-0.3	13.3
		충남	-	-3.1	-4.3	15.7	57.7	33.4	7.4
	충남의 점유율		5.3	4.2	3.7	4.1	6.2	8.2	7.8
유적· 사적지	관광객수	전국	140	138	153	167	178	184	257
		충남	11	15	9	10	6	13	11
	증가율	전국	-	-2.5	10.1	8.4	5.3	2.8	38.2
		충남	-	32.2	-41.9	13.4	-39.9	101.0	-14.2
	충남의 점유율		8.1	11.0	5.8	6.1	3.5	6.8	4.3
관광 지구	관광객수	전국	433	492	518	563	589	655	690
		충남	138	102	114	132	135	154	150
	증가율	전국	-	12.6	4.4	7.5	3.7	10.2	4.3
		충남	-	-27.2	10.8	14.6	1.1	13.1	-3.5
	충남의 점유율		32.0	20.8	22.0	23.5	22.9	23.5	21.7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분석

건축시설 관광 목적지 수 증가는 전국 평균은 32.6%이었지만 충남은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유형을 방문한 관광객 수에서는 전국이 40.9%, 충남은 5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시설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은 2005년 11.4%에서 2011년에는 12.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시설 유형에서 충남의 신규 목적지 수는 2.5배 증가하였지만, 전국 대비 점유율 측면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그리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지역의 건축분야 신규 관광목적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수 유입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악·평지 자원에서는 신규 관광 목적지 수가 전국 평균은 21.4%이었지만 충남은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유형을 방문한 관광객 수에서는 전국이 73.3%, 충남은 155.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평지 자원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도 2005년 5.3%에서 2011년에는 7.3%로 높아져, 산악·평지 자원 유형에서 충남의 신규 관광 목적지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적절한 매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유적·사적지 유형에서 신규 관광 목적지 수는 전국 평균 45.3%이었지만, 충남은 40%로 비슷하게 신규 목적지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유형을 방문한 관광객 수에서는 전국이 85.8% 증가한 반면, 충남은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청남도의 유적·사적지 자원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 유형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도 2005년 8.1%에서 2011년에는 4.3%로 낮아져,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역사문화 유적지 개발과 정책이 관광객에게 동기 부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표 10> 유형별 관광 목적지 및 방문객 수 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관광목적지 증가율 (2005년-2011년)		관광객수 증가율 (2005년-2011년)		전국대비 충남 관광객 점유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2005	2011
유원·휴양·수련시설	53.2	39.6	31.9	-8.8	32.0	22.1
전시·관람시설	88.3	44.4	36.3	31.0	9.0	8.7
스포츠·체육시설	72.7	575.0	68.8	273.1	2.0	4.4
숙박·식음시설	27.6	400.0	-9.6	445.6	0.1	0.4
건축	32.6	80.0	40.9	50.3	11.4	12.1
산악 및 평지자원	21.4	42.9	74.3	155.6	5.3	7.8
유적지·사적지	45.3	40.0	83.8	-3.5	8.1	4.3
관광지구	24.2	-10.0	59.4	8.4	32.0	21.7

자 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분석

마지막으로 관광지구 유형에서는 신규 관광 목적지 수가 전국 평균은 24.2%이 었지만 충남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유형을 방문한 관광객 수에서도 전국 평균이 59.4% 증가하였지만, 충남은 8.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구 유형에서 충남의 전국 대비 관광객 수 점유율도 2005년 32.0%에서 2011년 에는 21.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광 목적지 활동 특성

2009년-2010년까지의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전국 대 비 충청남도 주요 관광 목적지에서의 주요 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관광여행에서 가장 많이 한 활동은 단순 휴양 휴식, 자연·풍경 및 감상 그리고 식도락(지역 맛 집 등) 순으로 나타났지만, 단순 휴 양·휴식활동은 개인은 감소한 반면, 가구단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풍경 및 감상과 식도락(지역 맛 집 등) 활동에서는 개인 및 가구에서 모두 소폭 증

가하였으며, 야외위락 및 스포츠 활동은 개인은 증가하였지만, 가구단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사유적지 방문활동에서는 개인과 가구 모두에서 감소되었으며,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활동은 개인은 감소되었지만, 가구단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서의 활동은 단순 휴양휴식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감소되었지만, 충남에서는 가구단위 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 및 풍경·감상, 식도락(지역 맛 집 등)은 개인과 가구 모두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야외위락 및 스포츠 활동은 개인 및 가구 모두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사유적지 방문과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 등의 활동에서는 개인은 감소되었지만, 가구단위 활동에서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 및 보양(온천/스파 등) 활동에서는 가구단위가 감소한 반면, 개인 단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 참가와 체험 프로그램(농장체험 등) 활동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관광 목적지 주요 활동 변화 추이(2009년-2010년)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개 인		가 구		개 인		가 구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단순 휴식·휴양	38.3	29.8	30.6	21.8	30.7	34.2	36.8	31.6
자연 및 풍경 감상	27.6	35.1	29.7	32.2	29.8	40.8	30.1	33.5
식도락(지역 맛집 등)	7.5	8.8	8.3	5.7	8.6	10.5	9.5	6.6
야외 위락 및 스포츠 활동	3.5	7.0	6.7	26.4	6.7	1.3	3.8	3.3
역사유적지 방문	7.2	5.3	5.7	0.0	5.3	2.6	5.2	4.2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방문	4.9	5.3	3.4	1.1	3.4	0.0	4.4	5.2
건강 및 보양(온천/스파 등)	2.4	1.8	2.6	3.4	2.6	3.9	2.5	1.9
쇼핑	1.7	3.5	2.0	0.0	1.9	2.6	1.2	2.4
지역 문화예술·공연관람	1.3	1.8	1.6	2.3	1.6	0.0	1.1	1.4
지역축제 참가	1.2	0.0	1.7	2.3	1.7	1.3	1.3	2.4
체험프로그램(농장체험 등)	1.0	0.0	0.9	0.0	0.9	1.3	0.9	0.5
종교·순례	1.2	0.0	2.7	3.4	2.5	0.0	1.1	4.7
갬블링(카지노·경륜·경마 등)	0.1	0.0	0.1	0.0	0.1	0.0	0.0	0.0
기타	2.2	1.8	4.1	1.1	4.1	1.3	1.9	2.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 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국민여행 실태조사 분석

V. 결론 및 시사

오늘날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국가 간 관광객 유치와 국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 주민소득증대, 고용효과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많은 노력과 지원 체도를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목적지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종화, 2006).

본 연구는 관광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표인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및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국내 관광 목적지들이 관광객 행태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 및 공급되어 지역 관광객 수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전국 대비 충남을 비교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역단위 관광지 개발에 대해 전국 대비 유형별 관광 목적지 및 관광객 수 변화상을 차별화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향후 충청권 관광지 개발 및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에 서 나타난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신규 관광 목적지 유형을 대분류로 살펴보면, 전국에서는 문화자원 58.4%, 관광장소 및 시설 유형이 53.0%, 그리고 자연 및 생태환경은 21.5% 순으로, 동 기간 중 국내 관광 목적지는 문화자원과 관광장소 및 시설 자원 위주로 개발된 것을 알 수 있다. 충남의 신규 관광 목적지는 관광장소 및 시설, 문화자원, 자연 및 생태환경에서 전국 평균을 모두 상회, 즉, 2005년 125개소에서 2011년 213개소로 88개소가 증가했지만, 유형적으로 보면, 스포츠·체육시설, 유원·휴양수련시설, 건축 및 전시·관람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관광 목적지 발굴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신규 관광지가 기존 골프클럽, 낚시터, 해수욕장·자연휴양림, 사찰, 성당 및 고택 등으로 기존에 관광통계상 집계되지 않았던 관광자원들이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5개 광역자치단체별 관광 목적지 수 및 관광객 수 변화 추이(2005년-2011년) 분석을 통해, 전국 평균으로 볼 때, 동 기간 중 관광지 수는 49%, 관광객 수는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청남도는 관광지 수가 70.4% 증가에 비해, 관광객 수는 16.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관광

지에 대한 매력성 증대나 효율적 신규 관광 목적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자원 유형에 있어서 충남지역은 산악평지 자원과 숙박식음시설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돋보였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주요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적지사적지 및 관광지구, 유원·휴양수련시설 등의 목적지는 동 기간 중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지역에서의 관광지 주요 활동 특성 분석 결과, 가구단위에서는 단순 휴양휴식, 역사유적지 방문과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 등의 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단위에서는 건강 및 보양(온천/스파등), 지역축제 참가와 체험 프로그램(농장체험 등) 활동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 활동에서는 유지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지역의 목적지 활동 변화를 정리하면, 충남 북부권의 건강 및 보양(온천/스파등)과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에서는 가구단위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내포/유교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유적지 방문에서는 개인 단위 보다 가구단위 마케팅이 더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축제 참가와 농장 체험 등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단위 시장 확대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관광객 방문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의 방문패턴과 관광활동의 특성에 따라 향후 관광정책에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그 동안에 관광객 수요분석은 관광객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관광객 조사통계에 의한 전국과 지역의 비교 및 연도별 변화분석을 시도한 것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 대비 충남지역을 사례로 한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고, 관광객 수요분석 기간과 일정 시점에서 신규 관광지 조사지점을 비교한 점에서, 이 결과를 전체적인 지역 관광수요의 영향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완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고동우(1998). "선택 관광행동 연구의 비판적 고찰: Annals of Tourism Research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1). pp.207-229.
- 고종화(2006). "관광지개발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관광지개발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0(6). pp.155-176.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2013. 5. 7. 17:15.

김상훈(1994). 「관광학개론」. 서울:범하출판사.

김영우(2004).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관광유형에 따른 여행상품 구매행동". 「호텔경영학연구」. 13(4). pp.185-204.

김원진·홍현철(2006). "경기도 동부지역 다목적지 관광활동의 공간적 연계와 형태 특성". 「관광학연구」. 30(3). pp.267-291.

김재관(1988). "부산지역의 관광권설정과 그 개발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103-112.

류인평·김정준(2010). "관광동기와 관여도에 따른 관광목적지 매력성 연구". 「관광경영연구」. 14(3). pp.69-93.

손재영·선우영수(2012). "동해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안지방 생태관광자원 발굴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7. pp.39-60.

송재호·김영표(2011).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 - 1962~2009년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경영학연구」. 154. pp.129-153.

엄수원(2003). "지역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9(1). pp.47-59.

윤병국(2012). "2000년 이후 국내 관광지리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관광연구저널」. 26(1). pp.131-148.

윤여송·최규식(2001). "영주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2. pp.115-133.

윤지연·정문규(2008). "동해안권 관광개발 활성화방안-고성, 속초, 양양,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경영학연구」. 12(3). pp.44-70.

이돈재(2000). "지역관광활성화에 관한 고찰-용인시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연구」. 7. pp.145-167.

이현중(2007). "체험관광동기에 따른 관광목적지 유형 선정 연구". 「관광연구저널」. 21(1). pp.69-81.

조명환·손해식·안영면·정익준·윤정현·배만규·신대중(1996). "부산시민의 여가유형별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8(1). pp.9-23.

조승아(2013). "자전거 관광객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관광코스 개발 방안". *Tourism Research* 38(1). pp.39-56.

최석호(2004). "Giddens의 근대성 이론으로 분석한 한국의 관광자원개발과정: 근대관광의 세계화와 한국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논의". 「관광학연구」.

- 28(1). pp.125-143.
- 최승담·조배행(1993). "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 수급분석에 대한 소고".
「관광학연구」. 17. pp.353-359.
- 통계청 홈페이지(<http://meta.narastat.kr>). 2013. 5. 7. 16:2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 한승엽·박수완(1998). "관광동기와 관광지 매력속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7(2). pp.35-51.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 황창윤(1992). "한국관광지의 구조적 특성과 이용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 Coltman. M. M(1981). *Introduction to Travel and Tourism: An International Approach*.
Van Nostran Reinhold; New York.
- Hu. Y. & Ritchie. B.(1993). Measuring Destination Attractiveness: A Contextual
Approach. *Journal of Travel Research*. 25-34.
- Inskip(1991). *Tourism Planning : An Inter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Van Nostran Reinhold; New York.
- Ritchie. J.R.B. and Zins. M.(1978). Culture as determinant of the attractiveness of a
tourism reg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5(2):252-267.